

[사후보도]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 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현대차 불법파견도 모자라, 울산공장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290일!
- 고용승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들, 연대 시민들에게 폭력만행 자행!
- 이재명 정부서도 현대차 불법 용인할 텐가

• 발신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민변 노동위원회
• 제목	[사후보도]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불법파견, 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기자회견 뒤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 국정기획위 요구안 전달(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15쪽)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 요청사항	기자회견 취재 요청 - 7월 17일(목), 10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
• 문의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안미숙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자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1. 현대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290일(7/17 기준)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일 넘게 폭염 속 노숙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여러 하청업체를 전전했지만, 그동안 고용승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난 2024년 10월 1일자로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했습니다. 이수기업의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자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004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에도 현대차는 20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정도 불법파견공정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수기업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전원해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던 약속과 관례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신고된 집회장소를 경비대가 침탈하여 천막을 부수고 여성을 표적하여 집단폭행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현대차는 무법천지입니다.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 집단해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3. 윤석열 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기존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 관례마저 파괴하고 기존 업체마저 폐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현대차 불법파견과 폭력만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5. 기자회견에서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는 “현대자동차 내에서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불법 파견 범죄도 모자라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연대자들을 집단폭행한 범죄집단 현대자동차에 대한 엄벌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 소집권자는 “민주당이 파견법을 도입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리해고 범죄를 처벌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수기업 집단해고 해결할 것”이라고 했으며,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대차가 보안팀을 통한 구사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6. 기자회견 후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면담을 요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남규(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조직팀장)
- 발언 1 :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하라!”
안미숙(현대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 발언 2 : “무법천지 현대기아차, 민주당도 공범이다! 이재명 정부 책임져라!”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발언 3 :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만행 엄정처벌하라!”
김상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영 이수기업 해고자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과 해결 요구안 전달 / 국정기획위원회로 이동 요구안 전달

<첨부자료>

1.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 1차하청 문제와 이수기업 정리해고
2.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의 기획된 탄압
3.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철회, 고용승계 투쟁 상황
4. 현대차 이수기업 투쟁의 의미
5. 3월 13일 / 4월 17일 현대차 구사대(경비) 집회 참가자 침탈폭력사진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이수기업 집단해고, 구사대 폭력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난 4월 4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불법 계엄 이전에도 계엄상태였다. 심지어 윤석열 퇴진 투쟁이 광장에서 한창일 때에도 노동현장은 계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 4월 18일과 19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을 현대차 구사대는 무참하게 짓밟았다. 경찰이 버젓이 있었으나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춰서는 문구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현대차가 백주대낮에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대차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업체가 폐업해도 고용을 승계해왔던 확약과 관례마저 어기고 현대차 1차 하청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음에도, 해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이수기업해고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알게 된 시민들의 연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고자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4년 5월 30일과 7월 25일 법원이 하청업체 이수기업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마자,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 폐업 후 고용승계 없이 전원 해고한 것이 그 방증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승계 없이 집단해고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채용으로 무마하려던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재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연대를 체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와 구사대 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아래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이 없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불법파견과 폭력을 일삼는 현대차를 엄벌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를 일터로 복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발언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각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작년 10월1일부터 해고자가 되어 290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벌더위 속 현대자동차 정문 앞 천막농성도 90일째 진행 중입니다. 진짜 사장 현대차가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실시, 그리고 모든 사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과 위장도급 그리고 불법파견 범죄와 착취를 통해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글로벌 탑3 달성은 불법파견 범죄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 착취의 산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랜 기간 사내하청을 통해 업체 사장이 사업을 포기하든 업체가 변경되든 정규 공정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작년 대법원이 이수기업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10월 1일부로 이수기업을 폐업시키고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적반하장으로 사내하청 바지사장 일신상의 이유로 폐업한 거라며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업체사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역사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만든 것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경험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수십 년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해왔습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 업체 사장과 간판만 바뀌었을 뿐 저희의 고용과 처우는 진짜 사장 현대차가 책임져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요구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런 정당한 요구조차 폭력으로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3/13, 4/18 두 차례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신고된 집회 장소를 폭력 침탈했고 천막을 강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를 향한 폭력 만행을 저질렀고 특히 4/18 폭력침탈은 여성연대자들을 표적화한 집단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불법파견 범죄도 모자라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연대자들을 집단폭행한 범죄집단 현대자동차에 대한 엄벌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범죄와 폭력 만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저희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희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삶은 매일이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불법파견 범죄에

시달려야했고, 원청사용자의 업체폐업 그리고 정리해고도 모자라 구사대의 폭력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식과 국민의 안전을 이야기한다면,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빠른시일 안에 만나 해고자들의 민생을 살피고, 상식적으로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을 엄벌하고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의 면담요구서 전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요구안 전달

[첨부자료]

1.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 1차하청 문제와 이수기업 정리해고

200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건설 이후 그동안 현대차는 사내 1차하청 업체 폐업 시 업체명과 사장만 바꾼 채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승계를 약속했음.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1인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장 내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고자 현대차 노·사는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신규채용을 합의했고 2020년까지 9,179명의 사내 1차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했음. 따라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화되며 업체별 공정 인원이 감소했고 현대차 사측은 업체 폐업 → 타 업체로 전환배치 및 고용 승계 → 폐업 업체 공정은 촉탁 계약직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음. 이후 2022년 불법파견 대법원 집단판결이 나오며 현대자동차 사내 1차하청은 4개 업체 297명만 남게 되었고 2023년과 2024년 추가 대법원판결 이후 3개 업체(울산2개·아산1개) 100여 명만 남게 되었음. 그리고 2024년 9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2개 업체(현인기업·이수기업) 중 1개 업체인 이수기업을 폐업했고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2024년 10월 1일자로 전원 해고하게 됨.

특별채용 경과

특별채용 합의 9,500명 중 9,179명 채용으로 특별채용 완료(소송자 등 특별채용 지원 거부)

구분	계	특별채용 인원			비고
		울산	전주	아산	
2012년	198	194	2	2	
2013년	1,658	1,319	222	117	
2014년	982	505	281	196	• 특별협의 합의 14.8/18
2015년	1,162	864	192	106	
2016년	1,400	1,292	69	39	• 특별협의 합의 16.3/21
2017년	600	510	53	37	• 특별협의 합의 17.12/19
2018년	1,100	752	216	132	
2019년	1,160	811	199	150	
2020년	919	469	231	219	
합계	9,179	6,716	1,465	998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이사 출신 이광걸이 운영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의 사내1차하청 업체로 2015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 각 의장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부 PDI 검사공정까지 이송하는 업무¹⁾를 담당하였음. 2020년 수출선적부의 대다수 업체가 특별채용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폐업했고 잔여인원은 수출선적부 이수기업과 2공장 현인기업으로 각각 전환배치 및 고용승계 되었음. 2021년부터는 5공장 차량이송공정을 제외한 전 공정을 원청 현대자동차 반납했고 추후 수출선적부 내 하부방청 라인 설비 및 환경 보전업무를 도급받아 5공장 차량이송업무와 함께 운영했음.

1) 201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2공장, 4공장, 5공장 차량이송을 담당하다 2016년부터 불법파견에 따른 특별채용이 진행되며 2020년에는 2공장 차량이송 업무를 반납했고 2021년에는 1공장과 4공장 차량이송 업무를 반납함(3공장 차량이송은 애시당초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 기본적으로 사내 1차하청 사장의 임기가 5년인 반면 이수기업 사장 이광걸은 10년간 하청업체를 운영했음. 이사출신 전관예우와 가장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공로를 인정받은 것.

2.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의 기획된 탄압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보복과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고 사내 1차하청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대차 자본의 기획적 탄압임. 그간 불법파견 소송을 유지하며 특별채용이라는 타협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소송이 패소하게 되었으니 꾀죄죄를 묻겠다는 것과 동시에 재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기간동안 고용유지 없이 해고로 탄압하겠다는 것임.

2019년 8월 22일과 2020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의 모든 사내1차 하청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 판단했음. 그런데 이 사건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음. 2020년 12월 2일, 2022년 1월 28일 재판부(재판장 이숙연)는 불법파견을 부정했고 2월 16일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불법파견을 인정함. 그리고 대법원은 2024년 4월 4일, 7월 25일 수출선적부 일부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부정했음. 따라서 타 업체에서 이수기업으로 전환배치 및 고용승계되어 근무 중인 21명의 노동자는 2024년 4월 4일 확정 패소함. 하지만 이수기업은 5월 30일과 7월 25일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음.

이수기업 조합원 소송현황			
소송당시 업체	소송결과		비고
이수기업 (공장이송) 4명	2020.02.06	1심 승소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대법원 승소 후 파기환송 됨
	2022.01.28	2심 패소	
	2024.07.25	3심 승소	
무진기업 (치장이송) 20명	2019.08.22	1심 승소	- 1심 승소 후 2019년 12월 31일부로 무진기업 돌연 폐업 - 무진기업 폐업 이후 2공장 현인기업과 수출선적부 이수기업으로 전환배치 및 고용승계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2020.12.02	2심 패소	
	2024.04.04	3심 패소	
민수기업 (부두이송) 2명	2020.02.06	1심 승소	- 고용 의제자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1명 파기환송(계쟁기간 차량방청 업무)
	2022.01.28	2심 패소	
	2024.07.25	3심 패소	
창조기업 (PDI 검사) 1명	2022.10.20	1심 패소	- 1심 계쟁기간 경리업무(1명) - 2심에서 청구 취지 변경했으나 증거불충분
	2024.07.17	2심 패소	
		3심 계류	
용진기업 (차량방청) 1명	2020.02.06	1심 승소	- 고용 의제자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대법원 승소 후 파기환송 됨
	2022.01.28	2심 패소	
	2024.07.25	3심 승소	

확정패소 인원이 이수기업 소속으로 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해 현대차 사측은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하며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해버린 것.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직접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유인물²⁾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음.

3. 현재 이수기업 투쟁 상황

- 24년 9월 30일 이수기업 폐업 후 고용승계 없이 전원 해고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2024년 8월 22일부터 전 공장 중·석식 선전전을 진행하며 현대차 사측을 규탄함과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함께 살자는 연대를 호소함.
- 8월 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 올랐고 정규직 노조의 엄호를 요청함.
- 10월 1일 전원 해고이후 10월 7일부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음. 동시에 공장 밖 투쟁팀은 각 공장 정문에서 1직 출근 선전전, 본관정문 앞 2직 출근 집중 선전전을 진행했음
- 25년 1월 8일 정리해고 100일 투쟁문화제를 마무리했고 2월 말부로 지부 노동조합에 머물던 이수 해고자들은 사외 투쟁팀에 합류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으며, 3월 13일 규탄집회를 통해 천막 설치를 준비했으나 사측의 구사대에 의해 천막을 강탈당함과 동시에 항의농성을 진행함. 3월 14일, 새벽 출근 시간에 다시 구사대의 침탈이 있었다. 그후 울산지역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과 약식집회를 진행했음.
- 3월 20일, 현대차 주주총회장 앞에서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4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재동 본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함. 4월 4일 서울모터쇼에 참석해서 현대차 부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음.
- 4월 18일 정리해고 200일 투쟁문화제 진행중 천막 설치하려고 시도 중 현대차 구사대 500명이 난입하면서 천막을 강탈하고 이수기업 해고자 동지와 연대시민 동지들에게 무차별 폭력. 폭행으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 구사대가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고도 오히려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시민들에게 경고방송과 연행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천막설치 실패후 문화제가 끝나고 이수기업해고자들은 노숙농성으로 이어졌음.
- 5월14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대응을 위해 민변과 인권활동가동지 십여명이 모여 진상조사를 위한 회의를 시작했고 현대자동차 구사대(경비) 폭력과 울산 북부경찰서 연대시민등 폭력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 및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5월 2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주최로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날 2번의 천막 설치 실패를 되새기며 다시 천막 설치를 성공적으로 하였음.
- 6월 5일 서울에서 연대버스가 천막농성장을 방문. 연대문화제를 진행함.
- 7월7일~7월9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와 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인 및 경제단체 부회장들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도 1인 시위 진행함.

2) 현대차 사측은 2024년 9월 9일, 사측 유인물을 발행하며 이수기업 폐업은 업체장 일신상의 이유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주장하면서도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은 점, 불법파견 법적 시비를 회피하기 위함이라 밝힘.

- 7월14~7월1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기준으로 순회투쟁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수기업이 정리해고된 내용과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임.

4. 이수기업 투쟁의 의미

현대차 사측은 그간 수십 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음. 2023년 5월, 형사처분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여전히 현장 내 비정규직 문제는 끊임없이 있고 있는 게 실정임.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와 더 많은 착취를 위해 간접영역에 2·3차 하청을 부문별하게 늘렸고 현재 126개 업체 6,45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음.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된 촉탁직은 7,000명을 넘어서며 현대자동차 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만 4천명이 근무하고 있음. 오늘날 이수기업 정리해고는 현대사가 언제든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현대차 사측의 탄압에 맞선 이수기업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임.

실제로 울산공장 사내하청인 현인기업은 올 연말 폐업을 앞두고 있었음. 그런데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2025년 말까지 1년 계약을 연장하였음. 그리고 현재 2·3차 하청 일부 업체도 연말 혹은 연초 폐업을 앞두고 있음. 폐업을 앞둔 4공장의 2차하청 대호이엔지를 인수할 의향을 가진 인수업체 '대승'에서 37명의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자는 얘기도 서슴지 않게 내뱉고 있음.

따라서 이수기업 투쟁은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임. 현대차 자본을 상대로 승리를 위해 원·하청 연대와 지역연대를 굳건히 하며 투쟁을 확장시켜 내야 함.

이수기업 조합원들은 그간 소송에 의존하며 지내왔음.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소송해놓고 조합원 자격 유지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만 지내왔던 시간이 상당했음. 소송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잘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잘 해보지 않았음. 그렇기에 현재 투쟁역량도 부족하고 자본에 맞서는 투쟁 자체가 낯설기만 함. 그렇지만 우리 투쟁을 강화시켜야 현대차 자본에게도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래서 내부 토론과 회의를 강화하며 거점투쟁을 목표로 나아가 보려 함. 또한, 전국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그렇다고 자기자본과 싸움 없이 연대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며 투쟁해 보려함.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가 많았으면 좋겠음.

5 .
3
월
13
일
•
4
월
17
일
현



대차 구사대(경비) 집회지 침탈 폭력 사진



<4.18 현대차 경비대 폭력 피해상황 >

-부상자(10명 응급차 후송 30여명 부상)
 조합원 심00 갈비뼈 2개 골절
 조합원 김00 종아리 근육파열
 조합원 함00 손가락 인대손상
 연대자 정00 무릎부위 찢어져 꿰맴
 연대자 현00 손바닥 찢어짐
 연대자 변00 안면타박 출혈
 연대자 김00 뇌진탕

이외 30여명 타박상, 자상 등





